

제37회 DCA대학생광고대상 응모과제

광고주	경찰청	브랜드	경찰청
출품부문	기획 & 작품		
과제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IMC 아이디어		
과제 문의	김미정 C@M mjkim@daehong.co.kr		

1. 캠페인 소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중반 국세청 환급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지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19년까지 누적 2.3조 원의 피해가 발생
-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 복구가 어려우므로, 예방 홍보에 주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시장 상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
- 대출 사기형은 '19년 전체 피해 중 81% 수준으로, 40·50대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이체 하는 피해가 다수
- 기관 사칭형의 건당 피해액은 대출 사기형의 2.7배 수준으로('19년 기준), 20대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 또는 대면 교부하는 피해가 다수
- '20년에 들어서며 대면편취, 문화상품권 등 현금 외 편취 수법이 급증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변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해지고 있음

3. 캠페인 상황

-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상제작·송출, 포스터 제작·배포,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해오고 있음
- 경찰청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금융기관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지속 발생하는 상황임

4. 해결 과제

- 위와 같이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19년 한 해에만 총 37,667건·6,3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
- 이에 영상매체, 인쇄매체, 기타 매체 등을 보고 국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접근에서 빠져나와 사전에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략과 IMC 아이디어가 필요

5. 커뮤니케이션 타겟

- 대출 사기형 전화금융사기의 주 피해자인 40~50대
-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주 피해자인 20대 및 전 연령대 피해자

6.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참가 부문에 **IMC 아이디어 제시 필수**
 - 기획부문은 캠페인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IMC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시
 - 작품부문은 각 부문 개별 출품이 가능하나 전 부문 IMC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시
- IMC 아이디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어디에서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을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 1) 예: 보이스피싱 체험존이나 상담소 등의 아이디어와 구체적 운영방안 제시

참고 2) 경찰청 및 공공기관 IMC 캠페인 진행사례

-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호프테이프 캠페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J448UO>

-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 : <https://www.zdnet.co.kr/view/?no=20180725094227>

- 부산경찰청 마! 라이트 : <https://www.nocutnews.co.kr/news/4102216>

- 부산경찰청 학교폭력 피해 신고 이색 광고판 : <https://www.nocutnews.co.kr/news/1195363>

▲ 전화금융사기 최신 범죄 유형

[기관 사칭형]

- 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계좌 및 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는 수법
- 최근에는 허위 결제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는 카드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결제된 것 같다.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착수하는 수법이 등장함

[대출 사기형]

- 대출 사기형 범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는 수법
-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도 조회, 계좌 잔고 조사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해 계좌 잔고를 이체하는 수법도 등장함

▲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기관 사칭형]

-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 → 계좌이체, 현금 전달 요구 시 무조건 사기

[대출 사기형]

- 대환대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음 →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

▲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별 피해 현황

구분	합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수	피해(억원)	발생 건수	피해(억원)	발생 건수	피해(억원)
'17년	24,259	2,470	5,685	967	18,574	1,503
'18년	34,132	4,040	6,221	1,430	27,911	2,610
'19년	37,667	6,398	7,219	2,506	30,448	3,892
'20년 1~4월	10,332	1,964	2,426	649	7,906	1,315